

『大韓文法(1908)』 격 체계 분석 연구

- 후사(後詞)와 격 어미를 중심으로

김희선*

|| 차례 ||

- I. 들어가기
- II. 서양 선교사의 격 체계 유형
- III. 『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
 - III.1. 사자학(詞字學)_후사(後詞)
 - III.2. 변사법(變詞法)_격 어미
- IV. 나오기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 태동기 국어 문법서인 김규식 『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에서 드러나는 국어 문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대 태동기 이전에 발간된 서양인의 한국어 문법서의 격 체계 전개 과정 및 『大韓文法(1908)』과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유길준 『大韓文典(1909)』과 주시경 『國語文法(1910)』의 격 체계,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의 격 체계 양상을 배경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김규식(1908)은 Underwood(1890)의 후치사 단독 체계를 비판하고, 명사 공용론을 바탕으로 하여 격 체계를 크게 후치사에 해당하는 ‘후사(後詞)’와 ‘격 어미’로 양분하였다. 즉, 김규식 『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는 Dallet(1874)에서 시작해 Ridet(1881)과 Scott(1887)으로 이어지는 격의 양분 체계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후사(後詞)’는 그 의미에 따라 총 12개로 하위 분류하여 후사의 종류가 많다. 이 중, 격치 후사, 물질 후사, 연유 후사 등은 격 어미와 중복되어 그 구분이 다소 모호하며, Underwood(1890)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의 후치사와 일치하는 것이 많았다.

‘격 어미’는 주격·소유격·목적격·지명격·원인격 총 5 격으로 나누었다. 김규식이 격 체계를 양분한 이유 중 하나는 주격과 목적격의 경우, 오토이 선행 명사의 격을 나타내는 통사적 기능만 있으므로 ‘후사(後詞)’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 순수하게 문법적 기능만 담당하는 격 표지는 주격과 목적격뿐이라는 관점은 주시경(1910)과 일치한다. 또한 ‘와/과’에 대한 의미 기능 서술에서도 주시경(1910)과 공통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주격 어미나 목적격 어미, 원인격 어미에서 선행 명사에 따른 이형태를 모두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은 주로 서양이나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한국어학에 학문적 깊이가 깊은 일본인의 문법서나 유길준(1906, 1909), 주시경(1910)에서는 선행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만을 제시하였다. 김규식(1908)의 이와 같은 격 어미 형태 제시는 Underwood 문법관의 영향과 국어를 하나의 언어 체계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데서 기인한 것이다.

주제어: 김규식, 大韓文法(1908), 근대 국어 문법, 격 체계, 후사

I. 들어가기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의 『大韓文法(1908)』은 유길준의 『大韓文典(1909)』, 주시경의 『國語文法(1910)』등과 더불어 근대 태동기¹⁾를 대표하는 국어 문법서 중의 하나이다. 김규식은 유년 시절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목사의 후견 아래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여

1) 근대 시기를 구분하는 여러 용어 중 본 고에서는 근대 태동기를 사용하고자 한다. 근대 태동기는 고종의 공문식 선포가 있었던 1894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까지의 기간을 지칭한다.

1897년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 시절 그가 몸담았던 로녹 대학의 잡지에 ‘韓國語’란 이름으로 장편의 글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귀국 후 대성학교와 경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며 『大韓文法(1908)』을 집필하였다. 이후 1912년에 『朝鮮文法』으로 개정하여 다시 나온다. 『大韓文法(1908)』과 비교하여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大韓’이나 ‘國’을 모두 ‘조선’이라 바꾼 점이나 보결사(補缺詞)²⁾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그 내용과 체계가 비슷하다.

기존의 여러 연구를 통해 『大韓文法(1908)』은 영문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大韓文法(1908)』과 서양 문법 또는 일본 문법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大韓文法(1908)』이 서양 전통문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영근(1983)에서는 김규식의 성장 배경과 본서의 인용, 내용적으로 합치점(合致點)이 많은 것을 근거로 Underwood의 문법과 서양 전통문법의 이해를 발판으로 국어 문법 체계를 세웠음을 주장하였고, 최경봉(2016)과 김주상(2020)에서는 김규식이 어린 시절 Underwood의 지도를 받은 점, 한국어에서 물질 명사가 큰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사의 하위 갈래 중 하나로 분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大韓文法(1908)』이 영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근거를 추가하자면 김규식은 보통성을 지닌 명사가 남성·여성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할 수 있다고 하여 성(性)에 따른 명사 구분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명사를 성(性)에 따라 구분한 기준이나 예문 등이 Underwood의 『韓英文法(1890)』과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을 보면 김규

2) 보결사(補缺詞)는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을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 타동사 앞에 쓰여 행동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목적보결과 ‘이다’ 앞에 쓰여 설명어를 보충하는 설명보결이 있다.

식의 문법관에 미치는 Underwood의 영향력이 자못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大韓文法(1908)』 본문에 나타나는 Underwood 『韓英文法(1890)』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보면 단순히 『大韓文法(1908)』이 Underwood의 문법관에만 오류가 기대었다고 보기에 힘든 점이 있다. 『韓英文法(1890)』에 대한 비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격 체계³⁾와 관련된 ‘후사(後詞)’와 ‘명사의 격의 변체’이다. 국어에서 격은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大韓文法(1908)』의 속성과 국어학자로서의 김규식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II. 서양 선교사의 격 체계 유형

앞서 김규식(1908)⁴⁾이 오류가 Underwood의 문법관에 기대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서양 전통문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김규식(1908)이 서양 국어 문법에 전통문법을 어떻게 접목하여 소화하였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 태동기 이전 서양 선교사에 의해 저술된 한국어 문법서의 격 체계에 대한 내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태동기 이전 시기 서양인의 관점에서 다룬 격 체계는 이미 우형식(2018)에서 다룬 바 있다. 우형식(2018)에서는 서양의 선교사들은 한국어의 격 체계에 대하여 서양 언어의 전치사에 대응하는 체계 즉, 후치사의

3) 본고에서는 격을 나타내는 표현들의 집합에 대하여 ‘격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개의 표현에 대해서는 ‘격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 이하 문법서에 대한 표기는 ‘저자(연도)’의 형식으로 한다.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의 시작은 Losny의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1864)』임을 밝혔다. 또한 형태 범주에서 격 표지와 후치사를 처음으로 구분한 것은 Dallet 『La langue coréenne(1874)』에서이다. 이후 이러한 구분은 Ridel 『Grammaire coréenne(1881)』과 Scott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1887)』으로 이어졌다. 이들 문법서에서는 격 체계를 9격 또는 10격으로 구분하였는데, 명칭은 문법서 별로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으나 그 의미는 같다. 무표격인 어간형(radical)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총 9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Dallet(1874), Ridel(1881), Scott(1887)의 격 체계

- 주격 - 이
- 구격 - 로
- 소유격 - 의
- 여격 - 에게
- 목적격 -을
- 호격 - 아
- 처소격 - 에
- 탈격 - 에서
- 한정격 - 은

후치사에 대한 분류는 격 체계에서와같이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Dallet(1874)에서는 불어의 전치사를 대신하는 것이 후치사임을 밝히고 이러한 후치사에 해당하는 예로 ‘보다’, ‘중에’, ‘인하야’, ‘위하야’만을 제시하여 후치사의 종류가 매우 적다. 후치사에 대한 내용적인 면은 Ridel(1881)과 Dallet(1874)의 서술이 거의 동일하다. Ridel(1881)에서는 프랑스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후치사의 예로 제시하였는

데 그 범위와 유형이 Dallet(1874)보다 확대되었다. Scott(1887)에서는 후치사를 용법상 부사적인 속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Dallet(1874)의 목록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 세 학습서의 후치사 목록을 종합하여 보면 (2)와 같다.

(2) Dallet(1874), Ridel(1881), Scott(1887)의 후치사 유형

- ① 명사적 후치사 - 밋헤(밋히), 우헤, 뒤헤, 압헤, 념헤, 아리에, 중에, 훈가지로, 씨문예, 대신으로, 안헤, 속헤, 외에, 만에, 밧기, 디전에
- ② 동사적 후치사 - 에셔, 위햏야, 안테, 씨, 족히, 녁넉히, 없이, 말고, 갓까이, 멀니, 업시
- ③ 첨사 - 조차, 까지, 브터, 보다, 하고, 더러, 드려, 니르러, 도록

위의 세 학습서가 명사 곡용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분법적 격 체계를 세웠다면, Underwood(1890)은 후치사 범주를 확대하여 격 표지를 후치사의 범주 안에 넣었다. 격 표지를 품사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후치사 단독 체계를 세운 것이다. Underwood(1890)은 후치사를 ‘명사에 붙어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나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집합’으로 보고 이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묶는 것은 문법을 더 복잡하게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명사 후치 표현을 후치사라는 범주 안에 모두 포함시키고 이를 다시 단순(Simple)후치사-복합(Composite)후치사-동사(Verbal)후치사로 분류하였다. 단순후치사는 격 표지에 해당하는데, 아래 (3)과 같이 총 9격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The man who’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 ‘이’, ‘식지’, 동사적 분사 기능을 하는 ‘야’도 단순후치사에 포함시켰다.

(3) Underwood(1890)의 단순(Simple)후치사 체계

- 주격 - 이, 가, 띄서
- 소유격 - 의
- 여격 - 의게, 안테, 드려, 띄
- 처소격 - 에
- 대격 - 을
- 조격 - (으)로
- 호격 - 아
- 탈격 - 에서, 브터
- 대립격 - 은

복합 후치사는 명사와 단순 후치사 조합으로 구성된 것인데, 다른 명사에 붙어서 단순 후치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 Underwood(1890)의 복합(Composite)후치사 체계

- ① 처소 - 안회, 밧기, 우회, 밋회, 것회, 엽회, 뒤회, 압회, 아래에, 아래, 속에, 것회, 쏫회, 가회, 이편에, 더편에
- ② 시기 - 전에, 후에
- ③ 연유 - 씨문에, 쑈름으로, 연고로
- ④ 대표 - 디신에, 대신으로

동사 후치사는 동사의 활용형이 화석화된 형태이다. 명사 뒤에 위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후치사가 선행할 수도 있다. ‘위ㅎ야, 연ㅎ야, 녀어, 건너’ 등이 이에 속한다.

정리하면 근대 태동기 이전 서양 선교사의 한국어 문법서에 나타나는

격 체계에 대한 유형론적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명사 곡용론에 근거하여 격 표지를 어미로 인식하고 독립된 단어 체계인 후치사와 분리하여 기술한 체계이다. 다른 하나는 격 표지 역시 후치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품사로 인식하여 이를 모두 후치사의 범주에 넣은 후치사 단독 체계이다.

Ⅲ. 『大韓文法(1908)』의 격 체계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김규식(1908)에서는 Underwood(1890)의 격 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타 문전에서 서술한 후사의 정의를 보면, ‘후사는 명사에 붙어 그 구어(句語)안에 다른 사자(詞字)와 관계됨을 나타낸다’ 하였고, ‘명사의 자격에 대하여는 변사법(變詞法)이 없다’(원두우목사 저 한영문법) 〈…〉 그러나 지금 이러한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려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규칙(此規)을 준수하려한즉 후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후사(後詞)’라는 두 글자 안에 「격」 소위(所謂) 어토(語吐)가 하나로 포함될(一統包含) 염려가 있고, 〈…〉 이렇게 한국 언어를 그 이통(二統)로만 변석(辨析)하여 어전(語典)을 완성하면 매우 혼잡 문란해질 것이다.

Underwood(1890)에서 격 표지를 모두 후치사의 범주로 넣은 것에 대하여 김규식은 체언의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는 격 어미를 후치사와 한 범주로 묶는 것에 대하여 반발한 것인데, 이런 체계를 적용한다면 어토(語吐) 역시 후치사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어의 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어토(語吐)란 오늘날의 어미에 해

당하는 개념으로 김규식(1908)에는 ‘각 품사의 원어(原語) 어미 외에 언어나 문장의 구가(區段)를 따라 작용되는 어미’라 정의되어 있다. 즉, 김규식은 철저히 명사 곡용론의 관점에 서서 명사의 격을 나타내는 단위를 독립된 단어로 간주하지 않고 어미로 본 것이다. 만일 명사의 격 표지를 후치사의 범주 안에 넣는다면 용언의 어미 역시 모두 후치사로 넣는 것이 가능할 셈이 된다. 이와 같은 명사 곡용론에 바탕을 둔 관점에서 김규식(1908)은 후치사에 해당하는 후사(後詞)를 어휘론의 개념인 사자학(詞字學)에서 다루고, 격 어미는 명사의 격의 변체라 하여 변사법(變詞法)에서 다루었다.

Ⅲ. 1. 사자학(詞字學)_후사(後詞)

‘후사(後詞)’는 ‘명사나 명사 대우에 붙어 그 명사로 하여금 부사절 되게 하는 것’으로 그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형태에 따라 문장 안에서 단독으로 선행 명사와 연결하는 단순 후사이며, 다른 하나는 ‘노말미암아’, ‘인(因)하야’와 같이 다른 후사나 다른 품사에 붙어 선행 명사와 연결하는 복잡 후사이다. 단순 후사와 복잡 후사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 기능에 따라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5) 김규식(1908)의 후사 체계

① 격치 후사(格致 後詞)

㉠ 의 : (1) 할분 사의(割分 思意) : 부분 - 전체

(2) 형용 사의(形容 思意) : 대상 - 형용

㉡ 로, 서, 게, 다려, 에셔, 게셔, 위하야, 과, 흠씨

㉢ 처소 후사(處所 後詞) - 에, 쯔지, 으로, 로, 부터, 에셔, 서, 너머, 건너, 지나셔, 못밧쳐셔

㉣ 시기 후사(時期 後詞) - 에, 쯔지, 으로/로 등

- ④ 연유 후사(緣由 後詞) - 으로/로, 과, 까닭에, 로(달햏야/동햏야), 말미암아, 햏여곰, 인햏야 등
- ⑤ 목적 후사(目的 後詞) - 위햏야, 인햏야, 노말미암아, 으로
- ⑥ 계고 후사(稽考 後詞) - 에디햏야, 으로, 을
- ⑦ 구별 후사(區別 後詞) - 외에, 말고, 맞게
- ⑧ 응종 후사(應從 後詞) - 위(爲)햏야, 인(因)햏야, 의(依)햏야, 슈(隨)햏야, 응(應)햏야
- ⑨ 반대 후사(反對 後詞) - 라도, 만은, 예, 을, 과
- ⑩ 대표 후사(代表 後詞) - 로, 대신에
- ⑪ 소유 후사(所有 後詞) - 의, 의게, 或게
- ⑫ 물질 후사(物質 後詞) - 로, 으로, 가지고

격치 후사는 ‘명사에 연결되어 그 명사의 어미와 같이 활용되어 명사의 자격을 바꿔주는 것’으로 이는 다시 소유격을 나타내는 것(㉑)과 지명격(指名格)을 나타내는 것(㉒)으로 나뉜다. 격치 후사의 정의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격치 후사는 명사의 어미와 같이 활용되는 것으로 격 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실제로 격치 후사 ‘의’는 후술할 격 어미의 ‘소유격 어미’와 중복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원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어미인데, ‘후사로 특별히 인증할 때는 ‘부분과 전체’ 또는 ‘다른 대상의 소속됨’을 나타냄으로써 형용’하는 의미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격치 후사와 소유격 어미의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예문을 보면 격치 후사의 예문인 ‘새의 날개’(전제-부분)나 ‘호랑이의 힘’(대상-형용)과 소유격 어미의 예문 ‘님군의 권세’(대상-형용), ‘신하의 직분’(대상-형용)을 비교해 보면 의미 기능상으로 이 둘의 차이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격치 후사가 소유격과 지명격을 나타낸다는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격치 후사는 소유 후사의 작용과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소유 후사 역시 소유격 어미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격치 후사 ㉠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명사의 지명격(指名格)을 나타내는 것’이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사의 지명격(指名格)이란 서술된 행동의 목적지가 목적격 명사 외(外)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 역시 후술할 지명격 어미와 의미 기능이 동일하다.

격치 후사 외에도 격 어미와 중복되는 후사에는 연유 후사가 있다. 연유 후사는 ‘어떠한 것이 다른 것의 연유나 원인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연유 후사는 ‘명사가 다른 일의 원인되거나 다른 사물의 원질(原質)됨을 나타내는’ 원인격 어미 ‘(으)로’와 중복된다.

물질 후사 역시 원인격 어미와 유사한 개념이다. 물질 후사는 ‘어떤 대상의 물질을 지명’하는 것이고, 원인격은 ‘명사가 다른 일의 원인되거나 다른 사물의 원질(原質)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 다 사물의 물질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 기능이 같다. 실제 예문을 보면 물질 후사는 ‘이 상은 철로 만다렸쇼’, 원인격 어미는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그 의미 차이가 분명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격치 후사와 소유 후사는 소유격 어미와 지명격 어미에 대응하고 연유 후사와 물질 후사는 원인격 어미와 대응하는 개념인 것이다.

격 어미와 중복되는 후사를 제외한 처소·시기·목적·계고·구별·응중·반대·대표 후사가 순수 후사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앞서 살펴본 Underwood(1890)의 후치사 목록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Underwood(1890)의 복합 후치사는 처소·시기·연유·대표 후사에 해당하고, 동사 후치사 ‘위하야, 연하야’는 목적 후사와 응중 후사에, ‘넘어, 건너’는 처소 후사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고영근(1983)에서는 김규식(1908)의 단순 후사와 복잡 후사가 Underwood(1890) 후치사 갈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후사의 유형을 보면, 김규식(1908)에는 논의의 대상을 나타내는 계고 후사, ‘그사람말고’와 같이 따로 구별하여 칭하는 구별 후사,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반대 후사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과 김규식(1908)에서 제시한 후사 종류의 양이 더 많은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단순히 Underwood(1890) 후치사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Underwood(1890)의 단순 후치사는 김규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격 어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예 후사로 논할 만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일부 후사가 격 어미와 겹친다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여전히 주격과 목적격 등은 후사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Underwood(1890)의 후치사 갈래와 비슷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Ⅲ. 2. 변사법(變詞法)_격 어미

변사법(變詞法)이란 ‘명사가 문장에 인용될 때 각 그 상관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품사의 어미가 변화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말’로, 격 어미는 변사법 중에서 품사의 변체식에서 다루고 있다. 주격·소유격·목적격·지명격·원인격 5격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6) 김규식(1908)의 격 어미 체계

주격 어미 - ① 상론 주격 어미 : 이(시 히) 가

② 별론 주격 어미 : 은(슨 혼)

목적격 어미 - ① 상론 목적격 어미 : 을(슬 흘 를)

② 별론 목적격 어미 : 은(슨 혼)

소유격 어미 - 의

지명격 어미 - 에

원인격 어미 - 로(으로 스로 호로)

주격과 목적격 어미는 상론과 별론으로 나뉘는데, 주격 별론과 목적격 별론은 모두 그 형태가 ‘은/는’으로 동일하다. 김규식은 이 두 ‘은/는’은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와 그 의미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판단 아래 이 둘을 구분하여 놓았다. 주격 별론의 ‘은/는’은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오는 것으로 이때의 ‘은/는’는 주제어 기능을 한다. 이와 달리 목적격 별론의 ‘은/는’은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와서 대조나 한정 의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소유격·지명격·원인격 어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개념이 후사(後詞)와 중복되는데, 김규식 역시 이들을 선행 명사 없이 단독으로 보면 격치 후사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격과 목적격 어미는 오로지 체언의 통사적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이들은 선행 명사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보아도 Underwood(1890)와 같이 후치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후사(後詞)와 기능이 중복되는 소유격·지명격·원인격 어미를 제외하면 순수 격 표지는 주격과 목적격 어미 두 가지만 남게 되어 후사의 범주가 매우 다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격 어미는 매우 빈약한 형태를 띤다. 이는 Ridel(1881)과 Scott(1887)에서 격 표지를 9격으로 구분한 것에 비해 후치사의 형태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것과 정반대의 양상이다.

격 표지의 체계가 이와 같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치사와 분리하여 기술한 이유는 격 표지와 후치사가 기능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후사(後詞)의 주된 기능은 선행 명사에 붙어서 그 선행 명사가 문장 안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반면 격 어미는 별다른 의미 기능 없이 선행 명사에 붙어서 선행 명사와 다른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후사와 격 어미의 근본적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유형화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김규식의 격 어미 체계는 주시경(1910)과 일변 일치점이 있다. 첫째는 주격과 목적격에 대한 인식이다. 주시경(1910)에서는 격 체계에 해당하는 갈래를 ‘것’이라 칭하고, 이를 ‘만’과 ‘금’으로 양분하였다. ‘만’은 선행 명사의 격을 나타내는 격 표지로 12개의 갈래로 하위분류된다.

(7) 주시경(1910)의 ‘것’ 체계

격 표지	주격(임훗만) : 이/가 목적격(쌔훗만) : 을/를
격 표지 + 의미 기능	복수주격(덩이임만) : 에서 동일격(한가지만) : 도 대조격(다름만) : 은/는 동화격(다름한만) : 인들/(이)라도 임의격(안가림만) : 인들/(이)라도 택일격(낮됨만) : (이)든지/(이)나 특별격(특별함만) : (이)야 단독격(홀로만) : 만 호격(부름만) : 아/야/(이)여 개별격(낮한만) : 마다

이 중에서 아무 다른 뜻 없이 순수하게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에는 주체격(임훗만)과 객체격(쌔훗만) 단 두 가지뿐으로,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명칭에 ‘훗’을 첨가하여 의미 기능이 있는 격 표지의 명칭과 차이를 두었다. 이는 김규식이 후사(後詞)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소유격·지명격·원인격 어미를 제외하면 순수 격 표지는 주격과 목적격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본 것과 동일한 관점이다.

후치사에 해당하는 ‘금이’에 대한 분류에서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관점을 찾을 수 있다. ‘금이’는 사건이나 움직임이 발생하는 위치를 한정해주는 것으로 선행 명사에 붙어 해당 명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이러한 금이는 크게 구체적인 사물을 한정하는 ‘몬금’과 추상적인 사건을 한정하는 ‘일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에 따라서 총 11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8) 주시경(1910)의 ‘금이’ 체계

위치(자리금) : 예/에서/(으)로/까지/쯤

사물(몬금) : 예/에서

시간(때금) : 예/에서/(으)로/까지/쯤

수량(셈금) : 예/에서/(으)로

수단(부림금) : (으)로

동물(움몬금) : 예/에서/에게(서)/더러

사건(일금) : 예/에서

개별(낫한금) : 마다

원인(까닭금) : 예/(으)로

동반(함께금) : 와/과

동일(다름한금) : 엔들

이 중, 동반을 나타내는 ‘함께금’의 ‘와/과’는 접속사의 갈래인 ‘잇’에서도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와/과’의 의미와 기능을 분리하여 생각한 것이다. 즉, ‘잇’의 ‘와/과’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금이’의 ‘와/과’는 선행명사가 해당 문장에서 부사로 작용하게 한다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 둘을 구분한 것이다.

이처럼 기능에 따른 ‘와/과’의 구분은 김규식(1908)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난다. 주시경(1910)의 ‘잇’에 해당하는 갈래를 김규식(1908)에서는 ‘접속사’라 칭하였다. 이 ‘접속사’ 갈래는 동등 접속사·상속 접속사·순수 접속사로 나뉘고 동등 접속사는 다시 증가적 접속사와 반대적 접속사로, 상속 접속사는 연유적 접속사·가정적 접속사·시기적 접속사로 나뉜다. 이 중, ‘나와 너’ 같이 동등의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동등-증가적 접속사에 ‘와/과’가 있다. 그런데 이 ‘와/과’는 앞서 살펴본 후사(後詞)에도 나타난다. 즉, 주시경(1910)과 마찬가지로 선행 명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작용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와/과’의 경우는 이것을 후사(後詞)의 한 갈래로 보고,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의미에 따라 ‘연유 후사’와 ‘반대 후사’에 포함시켰다.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와/과’는 동등 접속사로 보아 각각을 따로 구분한 것이다. 주시경 문법이 민족주의 언어관에 입각하여 국어가 지니고 있는 순수한 성질을 토대로 문법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만큼 주시경의 격 체계와 일치하는 부분은 순수한 국어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주격 어미나 목적격 어미, 원인격 어미 등을 보면 ‘이(시 히)가’, ‘은(은 혼)’, ‘을(을 흘 름)’과 같이 해당 어미의 이형태를 모두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거시(것이)’, ‘거슬(것을)’, ‘거슨(것은)’과 같이 연결된 표기와, ‘밧히/밧치(밧이)’, ‘밧흘/밧출(밧을)’, ‘밧흔/밧즌(밧은)’과 같이 어종의 격음화가 나타난 격 어미 형태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선행 명사의 받침에 따른 격 어미의 이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주로 서양이나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Underwood(1890)에서는 단순 후치사의 용법과 관련하여 단순 후치사가 선행 명사와 결합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태 변화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9) Underwood(1890)의 단순 후치사 형태 변화 규칙

1. ㅂ 또는 ㅅ으로 끝나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후치사 앞에 ㅅ을 삽입한다.
2. 결과적으로 ㄷ으로 끝나는 단어와 ㅅ으로 끝나는 단어의 구분은 없지만(모두 ㅅ으로 끝남), 모음으로 시작하는 후치사를 붙이면 다시 나타난다.
3.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몇 가지 경우, 그리고 ㅂ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의 경우, ㅎ이 삽입되어 후치사의 초성이 된다.

(9)-1은 중철에 관한 규칙으로 ‘갓(hat)’에 단순 후치사가 추가되면 ‘갓시’로 표기하는 것과 같다. (9)-2는 어종의 격음화와 관련된 규칙이다. ‘밭(field)’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후치사가 오면 원래 받침인 ㄷ(또는 ㅌ)이 ㅅ으로 귀착되고, 이어 격음화된 자음이 붙어 ‘밭치’가 된다. (9)-3은 모음이나 ㅂ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에 단순 후치사가 올 때 ㅎ이 첨가되는 현상인데, 일부 명사에 한해서만 국한되는 예외적 규칙으로 보았다.

근대 태동기에 간행된 일본인 화자용 한국어 학습서에서도 격 표지의 이형태를 모두 제시한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이 시기 한국어 학습서의 격 체계 서술을 보면,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서에서 ‘이, 가, 시, 치, 히’, ‘은, 는, 슌, 촌, 혼’, ‘을, 를, 슬, 출, 흘’과 같이 격 표지의 이형태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격 표지의 형태 변화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가나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히로노 간잔(廣野韓山) 공저 『(譯對日韓新會話(1905)』에서 찾을 수 있다.

(10) 『(譯對日韓新會話(1905)』의 격 표지 형태 변화 규칙

선행 명사의 받침에 따라 ‘시’는 ‘ㅅ’ 받침, ‘치’는 ‘ㄷ’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 사용하며, ‘히’는 그 용법이 매우 적는데, ‘히’가 사용되는 단 한

한 학문적 깊이가 매우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김규식(1908)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유길준의 『朝鮮文典(1906)』이나 그 개정본인 『大韓文典(1909)』와 주시경(1910)에서는 모두 격 표시 형태에 대하여 선행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김규식(1908)의 격 어미 이형태 표기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Underwood 문법관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김규식(1908)에서 제시한 예시 중, ‘밧치’는 Underwood(1890)의 (9)-2에 해당한다. 다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 표시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는 Underwood(1890)은 이를 중철한다고 하였고, 김규식(1908)은 연철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밧치’가 ‘밧히’로도 표기된다고 한 것 역시 김규식(1908)에서만 나타나는 기술이다. 그러나 김규식이 『大韓文法(1908)』을 저술할 당시 Underwood(1890) 등을 참조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격 어미의 이형태를 모두 제시한 것 자체는 Underwood나 다른 서양 문법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국어를 모국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 체계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데서 기인한 것이다. 김규식의 문법관이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김규식(1908)의 서문에 있는 ‘국어역대(國語歷代)’를 통해 알 수 있다. 김규식은 ‘국어역대(國語歷代)’에서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 한국어는 투라니아 각종 언어 중 만주어와 유사하며, 어법으로는 일본어와 유사하다고 밝히고 오늘날의 한국어가 북방 언어와 남방 언어가 유입되어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국어를 계통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하나의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언어로 다루었다는 점은 어문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어에 접근한 유길준과 주시경의 문법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반대로 국어를 하나의 객관적인 언어 체계로 다룬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문법서와는 동일한 관점이다. 이와 같이 국어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로 인해 주로 외국인 대상 학습서나 문법서에서 나타나는 격 어미의 이형태 제시가 『大韓文法』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나오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김규식(1908)의 격 체계는 Dallet(1874)에서 시작해 Ridet(1881)과 Scott(1887)으로 이어지는 격의 양분 체계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체계는 다르다. 김규식(1908)의 순수 격 표지는 주격과 목적격 두 가지뿐이므로 후사(後詞)의 범주가 12개인 것에 비해 매우 빈약한 형태이다. Ridet(1881)과 Scott(1887)이 격 표지를 10 격으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탄탄히 한 것에 비해, 후치사의 체계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이는 김규식이 기존 서양의 격 체계 분류를 따르되,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국어의 사정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김규식의 격 체계가 국어의 특질을 잘 반영하였다는 점은 유길준, 주시경의 체계와 일변 공통적인 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주격 어미나 목적격, 원인격 어미는 선행 명사에 따른 이형태를 모두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은 주로 서양이나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한국어학에 학문적 깊이가 깊은 일본인의 문법서나 유길준(1906, 1909), 주시경(1910)에서는 선행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이/가’ 두 형태만을 제시하였다. 김규식(1908)이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격 어미 이형태 표기를 선택한 것은 서구

규범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과 국어를 하나의 언어 체계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국어 맞춤법이 제정되는 등 문자의 규범화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 시기인 근대 태동기는 국어의 체계를 정립하는 데 근간이 되는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국어 문법서에 담긴 체계는 그 이전의 서양인에 의한 한국어 문법 연구와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 의한 한국어 문법 연구와도 그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규식(1908)은 다른 국어 문법서에 비해 그 연구가 적은 편이다. 이는 김규식이 『大韓文法』이후 국어학자로서의 이력이 없으며, 독립운동가로서의 성격이 짙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大韓文法』이 근대 태동기의 주요 국어 문법서인 만큼 향후 국어학자로서의 김규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해볼 만 하다.

【참고문헌】

- 고영근, 『국어문법의 연구 그 어제와 오늘』, 탑출판사, 1983, pp.1-483
- _____, 「민족어의 격 어미 및 부치사, 첨사 범주와 그 유형론적 함의」, 『國語學』 제65집, 국어학회, 2012, pp.73-108.
- 김영옥, 「김규식, 大韓文法, 유인본, 1908, 동장, 113장(226면)」, 『형태론』 제3집, 2001, pp.165-180.
- 김주상, 「20세기 초 국어 문법서의 문법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남경완 · 이은영 · 박세영 · 성지연 · 이숙경 · 노석은, 『쉽게 풀이한 대한문전』, 월인, 2003, pp.1-296.
- 우형식, 「한국어 명사 후치 표현의 형태 범주와 기능」, 『코기토』 제85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pp.177-214.
- 최경봉, 「김규식 『대한문법』의 국어학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 제22집, 우리어문학회, 2004, pp.5-28.
- _____,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주)일조각, 2016, pp.1-455
- Dallet, C., 『La langue coréenn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Victo Palmé, 1874)』, 역대한국어문법대계 2-21, 탑출판사, 2008, pp.1-161.
- Ridel, F.-C.,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Lévy et S. Salabelle, 1881), 역대한국어문법대계 2-19, 탑출판사, 1977, pp.1-331.
- Rosny, L.,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Journal Asiatique 6,3 (1864), 역대한국어문법대계 2-19, 탑출판사, 1977, pp.1-287.
- Scott, J., 『A Corean Man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 (Shanghai :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887), 역대한국어문법대계 2-09, 탑출판사, 1977, pp.1-244.
- Underwood, H. G.,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Yokohama : Kelly&Walsh L.T., 1890), 역대한국어문법대계 2-19, 탑출판사, 1977, pp.1-453.

【참고사이트】

國立國會圖書館(National Diet Livrary, Japan), <https://www.ndl.go.jp/>

Abstract

A Study of 『Daehanmunbeop(1908)』 Postposition System Title
- Focused on “Husas” and “Case endings”

Kim, Hee-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Korean grammar found in the case system in Kim Gyu-shik's Daehanmun-beop(1908), a grammar book of Korean published during the early days of modern times.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case system in Korean grammar books published by Western people during the early days of modern times, the case system in Yu Gil-jun's Daehanmunjeon(1909) and Ju Si-gyeong's Gukeomunbeop(1910) published around the time when Daehanmunbeop(1908) was published, and the patterns of case system in learning materials for Korean published by Japanese people.

Kim Gyu-shik(1908) criticized the system of single postpositions of Underwood(1890) and divided the case system into “Husas” referring to postpositions and “case endings” based on the nominal declination theory. That is, his case system in Daehanmunbeop(1908) followed the system of dividing cases into two groups that began with Dallet(1874) and led to Ridel(1881) and Scott(1887). There are total 12 subcategories of “Husas” according to their meanings. Of these many types, Gyeokchi, material, and reason Husas overlap with case endings, which makes their separation from case endings rather ambiguous. They matched postpositions by Underwood(1890) in many cases, as well.

“Case endings” are divided into total five groups of subjective, possessive, objective, place name, and cause cases. One of the reasons why Kim Gyu-shik divided the case system into two parts was that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ases only had a syntactic function of representing the case of the preceding noun and could thus be considered as no “Husas.” He believed that only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cases were considered as case markers performing a purely grammatical function just like Ju Si-gyeong(1910). He also shared a viewpoint with him in his description of the semantic functions of ‘와/과.’

He also provided all the allomorphs according to preceding nouns in subjective, objective, and cause endings, and this way of description was usually found in Western or Japanese learning materials for Korean. There were only two forms, on the other hand, provided according to final consonants of preceding nouns in grammar books written by Japanese people with profound academic depth in Korean studies and in those by Yu Gil-jun(1906, 1909) and Ju Si-gyeong(1910). This way of presenting case ending forms by Kim Gyu-shik (1908) was derived from the influence of Underwood’s viewpoint of grammar and his own objectiv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as a linguistic system.

Key Word : Kim Gyu-shik, Daehanmunbeop(1908), Modern enlightenment period Korean grammar, Postposition system, Postposition(後詞)

김희선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khs2019@yonsei.ac.kr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5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

